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40

아비멜렉과 요담

(사사기 8:31~10:5)

기드온은 평생 동안 수많은 아내들 사이에서
수많은 자녀들을 두었어요.

무려 70명 정도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죠.
기드온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자
아들 중 한 명인 ‘아비멜렉’은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려 했던 걸 기억한 거죠.

**‘흠... 그때 아버지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아냐! 나는 왕이 되고 싶다고!
내가 기드온의 아들인데
나 말고 누가 왕을 꿈 꿀 수 있겠냐 말아야.’**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세겔’ 땅으로 갔죠.**

**“외삼촌, 이모! 저 아비멜렉입니다!
어유 할아버지! 그간 평안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버지 기드온에게서 나온 제 이복형제들이
그 숫자만 자그마치 70명입니다 70명!
그자들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인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친척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도 큰 이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비멜렉, 우리가 너를 돕겠다.
우리의 돈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세겔의 지도자들은
다 우리 편이니 적어도 이곳 세겔 땅에서만만큼
너를 왕으로 밀어줄 것이다. 켈켈켈.”**

**아비멜렉은 친척에게 받은 돈으로
나쁜 일들을 시킬 사람들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죠.**

**“들거라. 너희는 나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인 자들이다.
너희의 임무는 아주 간단하다.
내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거나 방해할 사람들...!
바로 내 형제들을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이다!
모조리 말이다! 킬킬킬.”**

**그리고 그 끔찍한 명령은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비멜렉의 야심과 탐욕에 칠십 명의 형제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딱 한 명, 아비멜렉의 막내 동생인 ‘요담’만이
겨우 살아남아서 깊은 산 속으로 도망가 몸을 숨겼어요.

세겔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상수리나무
아래로 데려가 왕으로 세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알면서도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산 속에 숨어있던 요담은 형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형이 왕이 된 걸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아비멜렉 형과 세겔 사람들은 죄를 지은 거라고.’**

궁리 끝에 요담은,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겔 사람들을 향해 외쳤죠.

**“세겔 사람들~! 세겔 사람들~!
내 말을 들어 보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 저거 요담 아니야? 갑자기 재미있는 얘기라구?”

**요담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리자
산 아래 모여 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요담이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했죠.**

**“잘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숲속의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기로 했어요.
많은 나무들이 먼저 올리브나무를 찾아갔죠.
“올리브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릴 다스려주겠니?”**

그러자 올리브 나무가 대답했어요.

**“허허. 안 돼요, 안 돼.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올리브오일을 짜 내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면 그 일을 그만둬야 하잖아요?”**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요.

“무화과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겠니?”

“뭐? 내가 왕이 되면 사람들을 위해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내는 건 누가 하고?
됐고, 다른 나무나 찾아봐.”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를 찾아갔죠.

“포도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 줄 수 있겠니?”

“왕이요? 왕은 무슨 왕입니까?
내가 맡은 역할은 맛있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요.
어휴. 왕 그런 거 할 정신없단 말이요!”

그러자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뽕족뽕족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대요.

“가시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주겠니?”

그러자 가시나무가 대답했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길 원한다면
내 기꺼이 그리해주마.**

**하지만 만에 하나 너희가 땀만을 먹고
나를 배신하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너희 모두를 활활활 태워버릴 거야. 알겠어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요담이 사람들에게
힘주어 말했어요.

**“여러분, 당신들 세겔 사람들은
왕을 원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나무랑 다름 바가 없죠.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비멜렉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할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든 걸 태워버리듯이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를 파괴해 버릴 거라고요!”**

이 말을 마치자마자 요담은 황급히 몸을 피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요담의 경고는 정말로 현실이 되었어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세겔의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말았죠.
애초부터 아비멜렉도, 세겔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에 따라 행동했으니까요.

결국 아비멜렉은 세겔의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고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하여 죽고 말았어요.
아비멜렉은 정말로 이야기 속의 가시나무였던 거예요.